

지역 소식통

정읍시 산내 장금리 일원 하수도 시설 설치 마무리

정읍시가 산내면 장금리 일원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하수도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17년 하수도 시설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총 21억원(국비 12.1억, 시비 5.1억, 원인지부담 3.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금리 일대(평내, 백필, 신구마을)에 3.1km에 달하는 하수관을 설치했다.

또 하루 30톤 규모의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설계과정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공사 추진 중에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은 물론, 유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치어 방류 행사

정읍시가 사라져 가는 토종어류의 자원 확충과 보전을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지역 내 동진천과 추령천 등 주요 지방하천과 소류지 4개소에 붓어와 동자개 치어 3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 행사는 내수면 생태계의 서식 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토종 어종의 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회원들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방류한 붓어와 동자개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만을 선별했다.

시는 방류된 물고기들이 자연 생태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계본' 100년만에 공개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완질로 보존... 고창서 기탁식 행사 가람 이병기 선생 일기 한 줄 단서, 판소리 고장 위상상승

현존하는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 고창출신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의 사설본 전체가 100여 년 만에 세상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층상회실에서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인 청계본 기탁식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소장자 박종욱씨 가족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문화원장 등 많은 축하 인사가 참석했다.

'청계본'에 대한 기록은 시조(時調) 시인으로 유명한 가람 이병기 선생의 '가람일기' 중 1932년 8월17일 기록에 처음 나온다.

선생은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의 박현옥(朴顯玉)씨의 집에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이 모두 있다"고 적었다. 그 뒤 가람의 제자 김삼불(金三不)이 박현옥씨가 소장한 '용고집전'을 1950년에 출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100여년 동안 판소리학계에서 청계본은 망실(亡失)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고창문화원의 존재를 수소문 해오던 판소리 연구자 김중철 교수(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가 이병기 고창군 향토연구가, 박현옥씨의 손자인 박종은 고창군 예총회장(전 고창군교육장)의 도움으로 박현옥씨의 장손(長孫) 박종욱씨 자택을 찾아 청계본 사설의 완질을 온전히 소장

해 있음을 확인했다. '청계본' 명칭은 고수면 평지리 청계동에서 따온 것으로 김삼불이 붙인 이름이다. 이 청계본은 박현옥씨의 부친 박경림(朴敬林, 1864~1932, 字는 處五) 선생이 주로 필사했다. 1906년 '심청가'를 시작으로 대부분 1910년을 전후로 필사했다. 필사 시기는 신재효 사설의 읍내본(邑內本), 성두본(星斗本), 외촌본(瓦村本)과 비슷한 시기다. '청계본'의 가장 큰 가치는 신재효 사설본을 모두 갖춘 완질(完帙)이라는



18일 오전 고창군청 2층상회실에서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인 청계본 기탁식 행사가 열린 가운데 소장자 박종욱씨 가족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와 고창문화원장 등 많은 축하 인사가 참석했다.

점이다. 현재 고창판소리박물관에 보관된 읍내본과 성두본은 일부 작품들이 누락됐고, 고창문화원에 있는 외촌본은 작품이 2편 뿐이다. 이에 비해 청계본은 '춘향가(동창)', '춘향가(남창)', '심청가', '적벽가', '토벌가', '박테령', '변강쇠가' 등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오섬가', '허두가', '노리화가' 등의 작품도 다 갖추고 있으며, 김삼불이 출판했던 '용고집전'도 그대로 들어 있다. 아울러 일부 작품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며, 내용의 누락 없이 달필(達筆)의 필체로 필사된 선본(善本)들이라는 점도 청계본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생활SOC 복합화 사업' 2건 선정

청우 문화센터 · 먹거리 힐빙센터... 149억 4000만원 확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부안 청우 문화센터와 부안 먹거리 힐빙센터 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49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 SOC 사업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SOC)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보육·교육·문화·체육 시설 등을 의미한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전국 129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았으며 군은 부안 청우 문화센터와 부안 먹거리 힐빙센터 등 2개 사업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

부안 청우 문화센터는 문화예술활동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부안읍 서외리 279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부안 먹거리 힐빙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전용 레스토랑, 어린이 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부안읍 봉덕리 239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추석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토요일' 개장

고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일 고창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토요일'을 개장했다. 이번 장터는 고창군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농협, 수협, 영농법인, 생산농가 등 22개소가

참여하여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판매품목은 배, 수박, 멜론, 고구마, 땅콩 견과류 쌀, 잡곡, 장어, 바지락, 장류 등 고창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며, 시중보다 10%가량 저렴하게 판매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항기공화국 정읍' 시책 발굴 주력

정읍시, 주요 시책 보고회

정읍시가 민선 7기 시정의 역동적인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주요 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과승기 부시장을 비롯해 36개 국·과·소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소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굴한 308개의 시책을 검토했다.

또 부서별로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시책과 정읍형 뉴딜사업 등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 계획과 해결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민선 7기 3년 차로 접어들며 역점 시책사업과 과목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항기 자원을 활용한 치유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항기공화국 정읍' 실현을 위한 신규시책과

복지시책 발굴 사업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위주의 시책 발굴에 주력했다.

주요 시책을 보면 ▲정읍시공원 순환도로 조성 ▲빛·소리·항기 디지털 아트센터 조성 ▲항기공화국 오감 체험형 기획전시 ▲항기 자원 활용 치유농업 활성화 ▲정읍 마걸리 특화 거리 조성 ▲정읍역 그린광장 조성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정읍 첨단바이오 산학연융합지구 조성사업 ▲정읍 첨단바이오 산학연융합원 설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교량·낙석 위험지역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정읍을 빛낸 인물 조각공원 조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다 함께 돌봄센터 조성 운영 ▲노인 목욕 바우처 지원 ▲레포츠 대회 개최 ▲그레핀을 활용한 고품질 시설물에 농산물 생산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중소기업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이아스팩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이 제시됐다. /정읍=김대환기자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 안전총괄·사업현장 점검

박현규 부안부군수는 지난 18일 안전총괄과 사업현장 전반에 대하여 점검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익진전 및 합리로 자리매김해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워라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말했다.

부안자연마당(2.5ha, 31억원)은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12월에 공사완료하였으며, 부안읍 선은리 7-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부안 지방정원(10ha, 63억원)은 2016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4월 공사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공사완료할 계획이다.

부안읍 선은리 7-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부안생태놀이터(2,500㎡, 59억원)

는 2020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5월 공사착공하여 이번달 말에 공사완료할 계획이며, 부안읍 봉덕리 7-1번지 일원 공사중인 부안지방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2.3km, 주차장 1.4ha, 85억원)은 금년 6월 공사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이다.

부안읍 봉덕리 7-8번지 일원 공사중인 부안자연마당 진입로개설사업(1.2km, 30억원)은 2019년 7월 사업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인근의 문중산 3ha, 신운천 생태하천(20ha)과 지방정원(10ha)이 어우러져 자연환경 생태복원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